

# 황순원 소설 「별」에 나타난 ‘소외’ 양상

심영덕\*

## || 차례 ||

- I. 시작하는 글
- II. 갈등과 화해의 대립 양상
- III. 자아탐구를 위한 소외의 극대화
- IV. 신화적 상상력을 통한 현실극복
- V. 마치는 글

## 【           】

사회학에서 소외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로 자주 쓰인다. 문학에서 이것을 하나의 사회 병리 현상으로 간주한다면,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소외를 극복하는 방안일 것이다. 황순원의 「별」은 일제 강점기에 발표되었다. 하지만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소설이다. 그러나 그동안은 성장소설 혹은 통과제의적 측면에 그 초점을 맞추다보니 조금은 획일적이거나 단편적인 분석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 글은 이런 논의에서 벗어나 소설에 나타난 ‘소외’ 의식에 초점을 맞춘다. 소외의 측면에서 소설을 조망하는 것은 소설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또는 심리학적 측면에 대한 접근과 상통한다. 이는 소설의 정신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된다.

「별」의 소년은 성격적인 면에서 정상적으로 보기 힘든 요소를 가진 인물이다. 그의 어머니에 대한 집착은 유별나다. 그러나 그에게는 미를 향한 엄격한 기준이 있다. 누이의 지극한 보살핌에 의해서 자신이 속한 세계와의 관계가 나름대로 행복함을 느낄 때 아름다운 본연의 자리를 찾는다는 입장이다.

소설에서 소외를 바라보는 방법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자아와 세계간의 시각이었고

---

\* 경북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사

다른 하나는 자아와 자아간의 시각이었다. 결국 소외 현상을 객관적 상황으로 보느냐, 주관적 심리 상태로 보느냐의 차이로 결과는 달라졌다.

두 입장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면서는 동시에 상호소통의 측면도 발견된다. 다시 말하면 자아와 세계간의 경우는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소외 극복의 당위성을 강하게 제시한다. 반면 자아와 자아간의 경우는 주관적이 강하다는 측면으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소외 극복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누이가 주는 사랑의 힘을 누이의 육체적인 미의 부재로 인하여 파악하지 못하다가 그것을 조심스럽게 깨달아가는 것이 이 소설의 중심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면서 하나의 성숙한 인격체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현실을 극복하는 의지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 갈등, 자아, 소외, 자기소외,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화해

## I. 시작하는 글

“소설가 황순원을 말한다는 것은 해방 이후 한국 소설사 전부를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sup>1)</sup>라는 표현에서 들어나듯, 황순원은 우리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런 만큼 황순원의 작품세계에 대한 연구도 다양한 각도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작가 사후에 연구된 각종 논의들은 다른 작가들과는 달리 전체적인 면모보다는 특정한 부분에 대해 집중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황순원이 서정적 단편 작가라는 기본적 관점에서 정신분석학적 연구와 서사론적 관점을 동원하여 구명하는 경우였다.<sup>2)</sup>

1) 권영민, 『황순원의 문체, 그 소설적 미학』, 『말과 삶과 자유』, 문학과지성사, 1985, p.148.

2) 양선규, 『황순원 소설의 분석심리학적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장현숙, 『황순원소설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_\_\_\_\_, 『황순원문학연구』, 푸른사상, 2005.

먼저 그 동안에 연구된 경우를 바탕으로 할 때 소설에서 나타나는 ‘서정성’은 황순원을 대표하는 단어라 해도 손색이 없다. 그런데 이런 서정성에서 논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낭만주의이다. 황순원은 작가 스스로 ‘일관된 낭만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sup>3)</sup> 그의 소설 속에서 낭만주의적 성격은 이원적 구조 즉 ‘서정적 이상’과 ‘산문적 이상’이 대립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것은 두 세계가 형성하는 긴장과 대립의 관계 아래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서정적 세계가 현실 인식과 인간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는 중심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것은 산문적 현실의 비인간적 구조와 고통에서 인물들이 구원하는 공간으로 작용한다. 인물들은 서정적 세계의 발견을 통해 자신의 삶에 윤리적 방향성을 획득하고 타인들과 경쟁, 갈등에서 벗어나 화해를 이루게 된다.<sup>4)</sup>

황순원의 소설 『별』(1940)은 주인공인 소년과 그 누이에 초점을 맞춰 소설을 구성함으로써 다분히 심리묘사에 가깝게 소설을 이어나가고 있다. 다른 작품과 비교할 때 다소 ‘특이한 점’<sup>5)</sup>이라는 부분을 참고로 그동안 편향된 연구방법에서 각도를 바꿀 근거를 찾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다음 아닌 ‘소외’ 양상이다. 이것은 단순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디디푸스적

박은태, 『황순원 소설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13권, 2003.

이익성, 『해방공간 황순원 단편소설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66권, 2016.

3) 황순원은 자신의 낭만적 취향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진정한 작가나 시인이 자기는 문예사조의 어느 주의를 신봉한다든가 무슨 주의자라고 자처하는 걸 나는 믿지 않는다. 그것은 예술가가 정말로 자신을 어떤 틀 속에 옹색하게 가둘 리가 없다는 걸 믿기 때문이다. 나도 한때 나 자신을 로맨티스트라고 부른 적이 있지만.”

황순원, 『말과 삶과 자유』, 『말과 삶과 자유』, 문학과 지성사, 1985, p.23.

4) 박은태, 『황순원 소설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3, p.119.

5) 이익성, 『일제 암흑기 황순원의 창작 단편소설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61권, 2015, p.121.

콤플렉스와 긴밀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간적 순수성에 기반을 두고 현실과 역사를 아우르는 것은 다른 소설과 확연히 구별되지는 않는다. 이런 서정적 세계가 다른 의미에서는 현실과 역사에 대한 소설의 묘사에 객관주의적 기초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별』은 그런 의미에서 구별된다. 절대적 그리움과 애증의 심리 상태는 언제나 작은 긴장으로 이어진다. 특히 결말부의 누이의 죽음을 통한 삶과 죽음, 사랑과 미움 속에서 겪는 갈등 양상은 또 다른 연구대상이 된다.

그의 몇몇 소설에서 확인되는 사실주의적 성과는 서정적 세계가 가진 이런 탈현실적이고 비역사적인 성격에 기인한다. 서정적 세계가 가치적인 면에서 현실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해서 현실은 상대적으로 동질화되기 쉽다. 다른 소설에서 보이는 작가의 이런 태도는 이데올로기적 분단의 현실을 묘사하는 데 있어 하나의 객관적인 장점이 되고 있다.

이런 사회학적인 특성과는 별개로 『별』에 나타난 소외 심리는 독특하다. 소외의 측면에서 소설을 조망하는 것은 내용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또는 심리학적 측면에 대한 접근과 상통한다. 전자의 경우는 아이가 갖는 내면적인 것, 즉 하늘과 별과 같이 여긴 어머니와 추한 것으로만 보이는 누이가 동일시되는 것에 대한 적대감을 정신적 변화 과정을 알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리고 후자는 ‘별’로 표상되던 어머니의 환상이 지워지는 아이의 심리 변화의 추이를 사건 단위별로 알아보는 것과 관련된다. 이런 두 측면은 소설의 정신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 사회학에서 소외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인용을 한 것은 프롬의 정의로 보인다. 그는 소외를 “스스로를 따돌림 당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되는 경험 양식”<sup>6)</sup>이라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그가 속한

6) 이규호 역, 『건전한 사회』, 삼성출판사, 1981, p.303.

사회로부터 고립된 느낌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신오현은 이런 고립을 “자기동일성이 이화(異化)되는 과정이나 현상”<sup>7)</sup>으로 보기도 하는데, 이것을 보면 소외란 삶의 과정에서 외부의 좋지 않는 환경에 의해 촉발되는 부정적 심리 현상임을 알 수 있다.

헤겔로 대표되는 ‘인간존재론 소외’나 마르크스의 이론에 따르는 ‘사회현상론적 소외’는 그 발생요인에 따른 분류이다. 여기에서 다루는 대상은 소설 장르이기에 내용의 표출 양상에 기준을 삼아 ‘자아와 세계간의 대결양식’<sup>8)</sup>에 초점을 맞춘다. 본고에서는 다시 갈등의 대상에 따라 ‘세계와의 소외’와 ‘자아와의 소외’로 나누어서 그 특성을 살피는 것이 목적이다.

## II. 갈등과 화해의 대립 양상

### 1. 내면의 갈등과 부정인식

갈등은 『철학대사전』<sup>9)</sup>에서 “두 개 이상의 요구가 동시에 일어났을 때, 그 선택에 망설이며 동요하는 상태, 즉 상극 상태”라고 한다. 이 경우의 요구는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없으며 그 방향이 서로 반대이고, 더욱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거의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모든 갈등의 행위자는 개인이다. 즉 국가 사이의 전쟁이나 인종 또는 종교집단 사이의 투쟁, 계급간의 투쟁, 그리고 사회 환경의 여러 상황 속에서

7) 신오현, 『소외 이론의 구조와 유형』, 문학과지성사, 1984, p.47.

8)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p.66.

이것은 다시 ‘자아와 자아의 소외’ 및 ‘자아와 세계의 소외’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후자는 다시 자아와 타인, 자아와 사회, 자아와 물질로 나누는 것이 가능해진다.

9) 『철학대사전』, 한국철학사상연구회, 동녘, 1997.

일어나고 있는 인간들 사이의 모든 갈등의 행위자는 심리학에서 개인으로 본다. 갈등은 때로 집단성을 띠는 경우도 많으므로 심리학과는 달리 사회학, 인류학에서도 사회 구조 내의 집단이나 사회제도의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의 집합적인 행위를 중시한다.

기존의 연구들이 공유하고 있는 관점 중의 하나가 ‘방해자로서의 누이’이다. 『별』이라는 소설은, 사내아이와 미화된 어머니의 이미지가 유지하는 일종의 관계를 기본 축으로 하여 전개 된다는 관점이다. 이 때 누이는 ‘추(醜)’로서 방해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 사내아이의 심리적 추이가 서술의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는 만큼, 이 소설은 충분히 그러한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사내아이는 자신의 심리적 진행과정을 표면적 문맥 위에다 노출시키고 있는 화자의 기능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등장인물 간의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소위 ‘대화의 원리’ 위에서 살아있는 인물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화자적 입장에서의 사내아이와 등장인물 중의 한 주요한 성격으로서의 사내아이는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럴 경우 이 소설의 기본 축 중의 하나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 아이와 어머니의 관계가 중심이 아니라, 아이와 누이의 관계가 하나의 서사적 중심의 역할을 담당할 수가 있음이다. 그렇다면 이제 관념화된 미(美)로서의 어머니는 현실적 애정관계인 아이와 누이의 화해로운 관계를 방해하는 방해자가 되는 것이다. 다음의 경우를 보자.

동네 애들과 노는 아이를 한 동네 과수노파가 보고, 같이 저자애라도 다녀 오는 듯한 젊은 여인에게 무심코, 자 동복 누이가 꼭 죽은 자 오마니 닳았다 왜, 한말을 얼굴에 듣자 아이는 동무들과 놀던 것도 잊어버리고 일어섰다. 아이는 얼핏 누이의 얼굴을 생각해 내려 하였으나 암만해도 떠오르지 않았다. 집으로 뛰면서 아이는 저도 모르게, 오마니 오마니, 수없이 외었다.(227면)<sup>10)</sup>

주인공이 아직 어린 나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어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당황스런 장면이다. 사랑하는 대상과의 동일시가 본인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전해질 때 정신적인 혼란은 더 커진다. 그런 사실을 거부하거나 벗어나고 하는 욕구로 인해 아이는 스스로에게 알 수 없는 다짐만 거듭한다.

실제로 욕구 불만을 일으켰던 개인적 욕구들이 만족될 수 없는 때 사람들은 그러한 욕구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하게 되며 그 자신의 능력을 넘어선 대상에 대한 욕구까지도 넘어서기 위해 주변의 모든 일들을 합리화시키게 된다.<sup>11)</sup> 이것은 보인도 모르게 일어난다. 절대적인 대상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다른 사건들은 그에게 인식의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다.

아이는 저도 모르게 피하는 자세를 취하였으나 서로 입술을 비비고 난 뒤에야 소녀에게서 물러났다. 별떡 일어났다. 그리고 아이는, 거친 숨을 쉬면서 상기돼 있는 소녀를 내려다보았다. 이미 소녀는 아이에게 결코 아름다운 소녀는 아니었다. 얼마나 추잡스러운 눈인가. 이 소녀도 어머니가 아니라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다.(235면)

방해자로서의 어머니가 비로소 등장하는 것은 앞에서 말한 바 있는 것처럼 모두의 과수노파의 ‘신탁’에서였다. 어머니는 어느 날 갑자기 동복의 누이를 통해서 아이에게 나타난다. 그 이전의 ‘관념화된 미’ 혹은 ‘이념의 열정’의 대상으로서의 어머니가 사라지고 현실의 모정(혹은 모성)이 아이의 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아이는 그 현실을 부정하고 그것에서 벗

10) 『韓國三大作家全集』 6, 삼성출판사, 1970, p.228. (이하의 인용은 마지막에 면수만 표기함)

11) 박창희, 『갈등과 소외』, 단국대출판부, 1989, p.35.

어니려고 노력한다. 결과적으로는 그 노력이 실패로 끝나는데 그 실패의 아이러니가 이 소설을 보다 깊은 비극적 감동의 세계로 만들고 있다.

아이는 인간관계(특히 애정관계)에서 심각한 파탄을 맞는다. 아이가 얼핏 누이의 얼굴을 생각해 내려 하였으나 누이의 얼굴을 떠올릴 수 없었던 것은 이미 누이는 ‘얼굴’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이는 이제 얼굴이 예쁜 소녀를 알아서 그녀의 ‘얼굴’만을 사랑하기로 했지만, 소녀 역시 그것을 거부하고 아이에게 입을 맞춘다. 존재를 거부하게 만드는 ‘관념’으로서의 어머니는 그렇다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소녀와의 결별 정면에서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미 소녀는 누이와 동일한 차원의 존재로 아이에게 인식되는데, 그러한 인식의 핵심은 ‘이미 소녀는 아이에게 결코 아름다운 소녀는 아니었다. 얼마나 추잡스런 눈인가.’와 ‘이 소녀도 어머니가 아니라는 생각’에 잘 들어나 있다. 소녀가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었던 것은 누이가 미워진 것과 같은 이치다. ‘암만해도 떠오르지’ 않던 누이의 얼굴에서 추(醜)를 인식하는 것은 소녀의 눈을 ‘추잡스러운 것’으로 인식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관념’의 차원이 아닌 것은 모두 추(醜)일 수밖에 없다. 이 소녀도 어머니가 아니라는 생각은 누이도 어머니가 아니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여야만 성립될 수 있다. 누이의 어머니됨을 부정해야 했던 아이에게는 소녀가 호소한 사랑의 행위가 추잡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이 제기된다. 방해자로서의 어머니, 즉 관념화 된 미로서의 어머니가 끝내 아이에게 강요하는 그 ‘추잡한’ 것으로부터의 도피는 과연 어떠한 내포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표면적, 심층적 구조에 대한 분석이 동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바탕이 될 때 혐오의 대상이 보여주는 호의에 대한 반발등 인간 심리의 나약함을 섬세한 문장 속에 감동적으로 포착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sup>12)</sup> 바로 이것이 이 소설이 지니고 있는 기본 축으로서의 미(美)와 추(醜)의 대립적 구조와 사내아이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대한 자세한 분석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 2.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화해

『별』은 미와 추라는 관념의 대립이 소설의 기본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앞에서 살폈다. 작품의 표면적인 구조가 그러한 것이기에, 미추(美醜) 인식의 주체인 사내아이를 중심으로 그 대립적인 항목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죽은 어머니/동복의 누이 (죽은 어머니와 관념화된 미/ 누이의 얼굴)
- 나) 각시인형(전)/각시인형(후) (어머니의 표상/누이의 표상)
- 다) 옥수수 쌍둥이(전)/옥수수 쌍둥이(후) (누이와의 일체감/ 누이와의 이질감)
- 라) 반달, 동그라미/ 반달, 배부르게 굶기 (원으로 표상되는 화해 욕구/ 현재적 불화)
- 마) 뒷집의 계집애/누이(관념화된 미의 피투사체/ 그것을 무산시키는 현재적 모성)
- 바) 뒷집 계집애보다 더 예쁜 소녀(전)/ 그 소녀(후) (위와 같음)
- 사) 누이의 죽음/ 누이의 삶 (관념화된 모성/ 현재적 모성)

이러한 도식은 미추인식의 주체인 아이의 심리에 아름답게 투영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구별이라는 관점이 기준이다. 때문에 항목 간에 내재하

12) 이태동, 『황순원 연구』, 문학과지성사, 2000, p.70.

는 어떤 통일된 관련성을 귀납하기란 어렵다. 그리고 작성의도도 그것에 있지 아니함이 물론이다. 도식을 우선 설명하자면, (전) (후)로 표시된 것은 아이의 충격적 경험을 전후로 해서 생긴 변화를 뜻하고, (바) 항은 그 충격적 경험이 변형되어 재현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괄호로 묶어 병기해 놓은 내용은 작품의 표면적 문맥이 암시하는 것을 거칠게 요약, 개념화시켜 본 것이다.

우선 가)항의 대립은 모든 대립의 근원적인 발단으로 작품 속에서 작용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고찰이 필요하다. ‘작품 속에서 작용’이라 함은 화자의 진술, 즉 사내아이의 심리가 투영된 작품의 서술문맥이 그렇다는 뜻이다. 어디까지나 그 진술은 등장인물로서의 아이의 진술이다. 죽은 어머니와 동복의 누이가 미와 추리는 관념적 차원의 대립관계로 설정되는 것은 ‘방해자로서의 어머니’가 출현하고 나서부터이다. 과수노파의 발언은 가히 ‘신탁’의 차원에서 사내아이를 사로잡는다. 그 이전까지는 아이에게 있어서 누이가 아무런 불화의 원인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아이를 사로잡는 그 무서운 ‘신탁’은 아이로 하여금 누이와의 불화를 감행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한다. 누이는 어떤 식으로든 ‘어머니’와 분리 되어야 한다고 아이는 생각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아이는 누이를 ‘어머니’로부터 격리 시켜야 했던가? 왜 아이는 미(美)에의 편집적 집착을 보여야 했던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물음들에 대한 대답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무릇 모든 아들의 완전한 성은 무의식적 차원에서 어머니와 하나 되길 원하는 바, 아이도 그러한 무의식의 동일성 속에서 모성과 함께 완전한 삶을 추구했을 것이다. 물론 이 때의 모성은 누이의 모성이었다. 그러나 누이는 현재적으로 누이였고, 아이는 누이의 모성을 관념화된 미로서의 모성과 양립시켰던 것이었다. 누이를 배제하면 아무 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아이는 누이를 배제하고 허상의 모성을 추구하려고 한다. 아이가 허상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물론 '방해자로서의 어머니' 때문이었다.

그 어머니는 아이가 '이념의 열정'이라는 차원에서 구축해 놓은 신성불가침의 성역이었고, 일종의 종교적 차원의 초월성이었다. 그 초월성과 지상적 성(sex)의 양립이 사내아이의 관념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초월성의 세계가 하강하여 지상적 차원의 그것 속으로 용해될 수밖에 없는 '신탁'이 아이를 가로막는 것이다. 최초의 성적 대상으로서의 모성은 누이의 몫이었으므로 아이는 그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그 초월성의 세계가 누이의 모성과 동일시된다는 것이 아이는 두려웠던 것이다. 그래서 아이는 '신탁'을 거역한다.

아니 우리 오마니 하구 우리 누 하구 같이 생겼다는 말은 거짓말이디요? 노파는 더욱 수상하다는 듯이 아이를 바라보다가 그러나 남의 일에는 흥미 없다는 얼굴로, 꽤 닳았다, 했다. 아이는 떨리는 입술로 다시, 아니 우리 오마니 입하구 누 입하구 다르게 생기디 않았이요? 하고 열심히 물었다.(228면)

아이의 '입술을 떨며' 그것을 거부한다. 사내아이에게는 그것을 수용한다는 것은 추잡한 것에 다름 아니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추잡한 것의 정체는 오이디푸스의 고통이었던 '근친상간'이었다. 이러한 '근친상간'의 신화적 모티프는 나) 항에서도 확인된다.

각시인형에 대한 아이의 인식변화는 계획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이다. '린도셀 속에서 산수책을 꺼내다가 그 속에든 인형을 발견하고 주춤 손을 거두었다'(228쪽) 던 아이는 이내 그것을 땅에 묻는다. 땅 속에 그것을 묻는 것은 상당히 의도적이었다. 어머니는 하늘의 별로 표상되므로 추잡한

것은 지하세계로 추방 되어야 했다. 물론 그 이전의 각시인형은 죽은 어머니의 현신(現身)이었을 공산이 크다. 그러나 그것이 땅 속으로 묻혀야 했을 땐 이미 그것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갑자기 추잡한 것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과목은 요일을 따라 바뀌었으나 항상 란도셀 속에 변함없이 들어있었던 각시인형’이었던 만큼 누이의 손질이 만들어 낸 그것은 무척 사랑스럽고 아끼던 것이 아닐 수 없다.

누이가 미워진 이후에라도 도리어 아이는 그것을, 그 죽은 어머니의 현신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도 있었다. 각시인형 그 자체는 아이가 그렇게나 집착하게 되는 미(美)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아이는 이미 미를 인식하는 수준에서 자신의 자연적 연령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으며, 그러했던 아이의 사랑이 강하게 반영되었던 것이 바로 그 각시인형이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한 순간에 추잡한 것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은, 역설적으로 아이의 각시인형에 대한 애정이 오로지 누이가 만들어 준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추론도 가능하게 해 준다. 말하자면 각시인형은 아이에게 이미 오래 전부터 누이의 표상이었던 것이다.

인형인가 누이인가 분간 못할 시로 얽힌 손들이 매달리는 것 같음을 아이는 느꼈다. 그러나 아이는 어머니와 다른 그 손들을 쉽사리 뿌리칠 수 있었다.(229면)

‘인형인가 누이인가가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형에 대한 애정이 누이에 대한 그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럼으로 ‘어머니와 다른 그 손들을 쉽사리 뿌리칠 수 있었다’라는 표현은 그 표면적 전달 의미와는 별도로, 누이에게 가지고 있는 강한 심리적 부담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이는 그 심리적 부담의 사생아일 수도 있는 인형

을 암장하는 것이다. 그러한 암장이 결코 아이에게 떳떳한 것일 수 없는 것이었음은 두 말할 나위 없다. 그 '떳떳하지 못함'에 당나귀가 연결된다.

아이는, 그럼 우리 오마니가 뉘처럼 생겼단 말이야? 뉘처럼 생겼단 말이야?  
하고 당나귀 가 알아나 듣는 것처럼 소리를 질렀다. 당나귀가 더 날뛰었다.  
아이 의, 뉘처럼 생겼단 말이야? 하는 소리가 더 커졌다.(229면)

당나귀가 아이의 분신으로서 미숙한 상태인 사내아이의 무의식의 폭발 상태를 표상할 수도 있다는 관점에 초점을 맞춘다면 결국 이 대목은 아이의 죄의식에서 오는 자학적 행위의 묘사일 수도 있다. 다)항의 옥수수 모티프도 누이와의 동일시가 거부되는 패턴으로 파악이 된다. 다)항과 관련된 누이의 모성애는 2살의 터울을 둔 남매지간의 것으로는 가히 눈물겨울 정도로 관계가 긴밀하다. 누이의 희생적 모성애가 아이에게 아름답게 느껴질 때 '쌍둥이 옥수수알'은 곧 아이의 누이에 대한 일체감을 표상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는 각시인형을 땅에 묻는 것처럼 뜨물항아리 속에 누이가 준 옥수수를 집어 던진다.

라)항은 아이의 모성 추구가 지상적 미(美)로 전이되는 첫 번째 에피소드로서 마)와 바)를 이끌어내는 전주곡이 되고 있다. 마)와 바)항은 사내아이의 관념화된 미가 피투사체로서 새로운 모성을 찾아나서는 과정과 그 결과를 보여준 항목이다. 소녀의 눈이 추잡스러운 것이라고 말하는 아이는 결국 그 속에서 자신의 눈을 보고 있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사내아이는 소녀의 육육적 애정표현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낸다. 그 거부감은, 각시인형을 묻고, 옥수수를 뜨물항아리에 던지면서 그 자신이 배제하려고 했던 누이와의 일체감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 동일시의 욕구, 무의식적 근친상간의 욕구에 대한 자책의 또 다른 한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다.

아이는 지금 자기의 오른쪽 눈에 내려온 별이 돌아간 어머니라고 느끼면서, 그럼 왼쪽 눈에 내려온 별은 죽은 누이가 아니냐는 생각이 미치자 아무래도 누이는 어머니와 같은 아름다운 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머리를 옆으로 저으며 눈을 감아 눈속의 별을 내몰았다.(239면)

이 대목은 『별』의 결말로서, 이 소설이 한편의 아름다운 시처럼 독자에게 와 닿도록 하는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연구자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각양의 관점 위에서 이루어지면서도 그러한 역할에 관해서는 이론이 없는 듯하다. 이 대목도 표면적 전달의미와는 별개로 그 심층적인 의미가 파악되어야 할 부분이다. ‘별을 내몰았다’ 라는 문맥적 진술은 심층적 의미 분석에서는 거짓 진술이 된다. 사내아이는 눈물을 흘렸을 뿐, 그것이 ‘누이의 별을 그의 눈에서 몰아내어’, 그의 무의식 속에서 ‘누이와 어머니의 혼합된 양태가 분리되는’ 것의 상징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아이가 ‘왼쪽 눈에 내려온 별은 죽은 누이가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상의 서사적 진술은 매듭이 지어지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sup>13)</sup>

### Ⅲ. 자아탐구를 위한 소외의 극대화

#### 1. 생의 외경(畏敬) 과정과 소외에 대한 의미 분석

프롬은 자본주의가 인간의 인격에 미치는 영향의 핵심문제는 소외현상이고 전제하면서 소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소외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한 사람의 이방인으로서 경험하는 경

13) 김용희, 『현대소설에 나타난 길의 상징성』, 정음사, 1986, p.33.

힘양식을 의미한다. 인간이 자기 자신 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소원화된 것이라 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세계의 중심이라든가, 또는 자기의 행위의 창조자로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와 그 행위의 결과가 드리어 주인공으로 되고, 인간은 이것에 복종하며 심지어 그것을 숭배하기 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sup>14)</sup>

『별』의 소년은 성격적인 면에서 정상적으로 보기 힘든 요소를 가진 인물이다. 그의 어머니에 대한 집착은 유별나다. 그리고 그의 미를 향한 강한 집념은 여기저기서 상황의 충돌로 나타난다. 누이의 지극한 보살핌에 의해서 자신이 속한 세계와의 관계가 나름대로 행복함을 느낄 때 아름다움은 본연의 자리를 찾는다. 누이의 사랑에 대한 집안의 반대에서 아이는 의붓 어머니를 따라서 누이와 관련된 일에 대한 반대를 한다. 이것은 결국 누이에게서 풍기는 모성애를 거부해 버리는 결과를 낳는다.

현대 사회에서의 소외 문제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자기 소외란 '인간의 물질적, 정신적 활동에 의해 산출된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낯선 존재가 되어 도리어 인간을 지배하는 힘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런 의미를 지닌 소외 현상은 현대에 이르러 거의 모든 인간관계에 걸쳐 확대되고 심화된다. 그런데 그 대상이 자신의 환경이나 사회와 연계될 때 그 세계와 관련된 자이는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 소설의 경우 14세 이후부터 전개되는 사건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우선 이 소설의 전체 구성은 사건의 전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

- 1) 누이의 입술을 보고 어머니와 닮지 않음을 안 아이는 누이의 인형을 땅에 파묻고 돌아오다가 당나귀에 채여 밭을 췌다.

---

14) 이규호 역, 『위의 책』, p.302.

- 2) 이복 동생을 업어 주고 있는 누이를 괴롭히다.
- 3) 옥수수를 좋아하는 아이에게 옥수수를 주는 행위를 통해 애정을 드러내다.
- 4) 땅따먹기를 하는 과정에서 누이가 도와주자 이를 싫어하는 내색을 하다.
- 5) 뒷집 계집애와 누이의 싸움에서 아이와 뒷집 계집애 남동생의 싸움으로 번진다.
- 6) 14살 아이는 모란봉 한 언덕에서 뒷집 계집애보다 예쁜 소녀와 입맞춤을 하게 된다.
- 7) 첫 가을 밤 누이의 연애 사건으로 아버지로부터 꾸중을 듣는 것을 보게 된다.
- 8) 누이와 아이가 산보하러 갔다가 치마 위에 누이를 누이고 돌아온다.
- 9) 누이가 시집을 갔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당나귀를 타다 떨어졌지만 다치지 않는다.

사건을 아홉 가지로 나눈 것은 아이가 느끼는 인식이 확연하게 구분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크게 보면 1)-3), 4)-6), 7)-9)의 세 가지로 묶여진다. 이것은 작가가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의 넓이와 관련된다. 앞의 두 경우는 9세의 아이가 바라보는 시선인데 공통적으로 그 시선은 ‘거부’가 중심이다. 그리고 뒤의 경우는 14세의 나이쯤인 세상을 조금은 깊게 인식하면서 ‘수용’의 양상을 가지는 부분이다. 따라서 전자를 자아와의 소외, 후자를 세계와의 소외로 나눌 수 있게 된다. 이 두 입장을 차이는 아래의 두 인용문에서 느껴진다.

1. 아이는 얼핏 누이의 얼굴을 생각해내려 하였으나, 암만해도 떠오르지



않았다. 집으로 뛰면서 아이는 저도 모르게, 오마니 오마니 수없이 외었다.(227면)

2. 그러나 아이는 누이가 채 다 곳기도 전에 손바닥으로 막 지워버리면서, 이젠 더 아냐! 이젠 더 아냐! 하고, 소리 질렀다.(233면)

소외된 삶은 자신의 일그러진 현실을 인식이 반영해 주는 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극복할 아무런 방도가 없는 약점은 그것을 바로 안다는 것이 더욱 큰 고통이 되기 때문이다. 소외된 삶은 이 같은 분열된 자신의 현실을 인식이 계속 반영해 오는 것을 허용치 않을 뿐만 아니라, 인식이 반영하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저주하고 부인하게 되는 것이다.<sup>15)</sup>

인간은 본래의 존재양식으로부터 이탈하여 인간 본래의 모습으로부터는 소원해진 다른 모습으로 변하기 쉽다. 이것은 달리 말하면 '비인간화된 상태'를 의미한다.<sup>16)</sup> 지금까지 말한 대로 인간이 모든 비인간적인 것들에 의해 인간 관계가 지배되는 현상을 소외라고 한다면, 소외는 우리가 그렇게 느끼든 느끼지 않든 하나의 객관적 상황이요 사회적 사실이다. 사람들이 소외감을 가지는 것은 소외의 객관적 상황이 사람들의 의식에 반영되어서 나타난 결과이지 그것 자체가 소외를 유발하는 원인은 아니다.

누이가 돌아간 어머니와 같은 애정을 베풀어서는 안된다고, 치마 위에 이 미 죽은 듯이 누워있는 누이를 그대로 남겨둔 채 돌아서 그곳을 떠나고 말았다.(237면)

어머니가 죽음으로써 소년의 의식 안에서 심미적 가치의 높은 지위를

15) 이영호, 『소외된 삶과 표상의 세계』, 한길사, 1991, p.87.

16) 이극찬, 『프롬의 자유 사상』, 연세대출판부, 1985, p.27.

접한 것과 마찬가지로 누이가 소년에게 심미적 가치의 대상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동일한 수준에 도달하여야만 한다.<sup>17)</sup> 그러므로 죽은 듯이 누워있는 누이를 남겨두고 떠난다는 것은 더 이상의 과도한 의미 부여가 개입되지 않는다는 장면이기도 하다. 결국 누이도 별이라는 인식은 자신이 가졌던 ‘관념’이 누이의 모성에 의해 깨어질 수밖에 없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아이가 누이야 말로 진짜 별이었음을 인식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 2. 미(美)에의 집착과 자기와의 소외

철학자가 아니면서 탈근대철학에 지울 수 없을 정도의 영향을 미친 인물이 있다. 정신과 의사였던 프로이트다. 그는 의사로서 인간 내부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무의식을 발견하면서, 그동안 이루어져 왔던 근대철학의 주체개념을 무너뜨려 버렸다. 이것은 철학외적인 연구로 근대철학의 근거를 뒤흔든 아이러니다. 그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병리행동의 원인을 관찰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의 존재를 발견한다. 그리고 꿈에 대한 연구를 계속함으로써 그것이 환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한 무의식은 겉으로 표현되지 않고 내부적으로 갈무리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욕망이라고 한다. 즉,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성교하겠다는 욕망(오이디푸스 콤플렉스)과 같은 것들,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면 정상적인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할 성적인 욕망 등이 무의식을 구성한다고 한다. 그래서 그러한 무의식을 극복하지 못하면

17) 신영미, 『희생제의를 통한 심미적 가치의 획득』, 『한국문예비평연구』 31집, 2010, p.228.

정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늘 남에게 샅바느질을 시켜 말쑥한 옷만 입고 다녀 동네에서 이름난 과수 노파가 제 손으로 인두질을 하다니 웬일일까.(228면)

아이는 인두질하는 과수노파의 손 가까이로 다가서며 퍼뜩 과수 노파의 손이 나이보다 젊고 고와 보인다는 생각을 하면서,(228면)

누이가 비단 색형겉을 모아 만들어준 낭자를 튼 예쁜 각시인형이었다. 그리고 아이가 언제나 란도셀 속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인형이었다. 과목은 요일을 따라 바뀌었으나 항상 란도셀 속에 이 인형만은 변함없이 들어 있었다.(228면)

인용된 대목들이 보여주는 것은 이미 사내아이의 미적 인식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는 점이다. 일종의 어머니 콤플렉스가 아니마로 사내아이의 심리에 고착된 결과로도 보이는 이러한 대목은 어떤 충격적인 계기로 인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드러낸다. 9살의 아이는 작품의 문맥상 이미 미(美)에의 집착을 심리 저층에 숨겨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이 일정한 ‘충격’에 의해 의식의 표면으로 부상하는 것이다. 실로 과수노파의 손이 ‘나이보다 젊고 고와 보인다.’고 생각하는 이 사내아이는 이미 정서적인 손상이 ‘충격’ 이전에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는 ‘무지의 순수’를 속성으로 하는 어린 아이가 아니라, 적어도 미적 인식의 차원에서는 ‘훼손된 세계’에 사는 성인적인 존재라 할 것이다.

바로 이 훼손된 세계가 자신의 소외 영역이다. 삶의 환경이 어둡고 자유롭지 못하고 고통스러울 때 생겨나는 비극적인 삶의 인식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한 인간이 그의 삶 가운데서 어떤 소외의식을 지니느냐에 따라 그

가 처한 삶의 조건이 어떤 불합리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다.<sup>18)</sup>

과수노파의 신탁적 발언에 접하는 충격이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미추 의식의 각성이라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미에 대한 집착이라는 측면에서 강화의 그것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죽은 어머니와 누이가 꼭 닮았다는 과수노파의 발언은 사내아이가 접하는 충격적인 최초의 경험이었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발단인 신탁에 다름 아니다.

모든 비극은 신탁에서 비롯된다. 사내아이는 그 비극을 모면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그는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도리어 그것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든다. 이 때 그가 취한 도피의 방법이 미에의 강한 집착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만은 여기서 만족하여 과수노파의 집을 나서 그 달음으로 자기 집까지 뛰어오면서, 그러면 그렇지 우리 오마니가 뉘처럼 미워서야 될 말이나고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다. (228면)

수없이 되뇌이는 가운데 아이는 스스로 고립을 느낀다. 그것은 과수노파에 대한 부정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소외이기도 하다. 어른의 입장에서 본다면 원죄의 근원성(어머니와 누이의 동일시)으로 스스로를 인정하고 소외를 긍정적으로 끌어안을 때 인간은 이 한없는 소외의 깊고 푸른 늪에서 극복될 수 있음이다.<sup>19)</sup>

그러므로 ‘미추 의식의 각성’이라는 개념화는 부분적으로는 일단 배제되어야 한다. 사내아이의 성숙은 미(美)와 추(醜)에 대한 성인적 각성에서

18) 장병호, 『소외의 문학 갈등의 문학』, 시와사람, 2008, p.221.

19) 김형자, 『소외의 서사학』, 태학사, 1998, p.80.

찾아질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의 핵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아이의 노력은 사회로부터의 탈출로 이어지지 못 한다. 9세 아이가 겪는 환경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자이는 가끔 한계에 부딪치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경향이 많아지게 된다. 그리고 다른 무엇인가의 비교보다는 스스로의 생각 속에서 고립되는 현상을 겪게 되는 것이다.

#### IV. 신화적 상상력을 통한 현실극복

신화란, 일반적인 의미에서, 원리들의 심상화 된 언어이다. 그것은 어떤 제도나 관습의 기원, 우연적 사건의 논리, 만남의 유기적 관계들을 설명해주는 것이다. 근래의 이론에서 본다면 국민(민족)의 집단적인 가치, 공공의 본능적인 가치에 대한 상징적인 투영이고 실제에 대한 언어이기도 하다.<sup>20)</sup> 그런데 그것은 언제나 근원적인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오이디푸스 신화도 예외일 수는 없는데, 근원적인 차원에서의 인간의 혈연관계 및 성(sex)의 문제를 그것은 함축하고 있다. '근친상간'이라는 (오이디푸스적) 신화적 패턴이 인간 심리의 어떤 근원적인 영역에 대한 심상화 내지는 미학적 동기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별』은 인간심리의 근원적인 국면을 그 발생기에 포착하여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실제로, 등장인물들의 유형이 환기하는 이미지가 오이디푸스 신화의 그것과 유사함을 보이는 곳이 많다. 그러나 모든 옛이야기들의 중요한 요소들은 그것이 후대의 이야기로 전승되는 과정에서 축소현상, 확대현상, 변

20) 안진태, 『신화학강의』, 열린책들, 2001, p.38.

형현상, 도치현상, 강화현상, 약화현상, 대치현상, 동화현상 등의 파생적인 형식을 지닐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sup>21)</sup>

하지만 9개의 에피소드로 진행되는 사내아이의 누이에 대한 미움은 사실은 내면에서 우러나는 미움이 아니다. 죽은 어머니에 대한 깊은 그리움의 역설적인 표현이다. 작가는 불필요한 대화의 생략과 암시를 통해 아이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기에 신화 속의 인물과 소설의 인물을 일대 일로 대비하는 것은 예기치 못한 오류를 낳을 수 있다.

그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별』의 인물 유형을 오이디푸스 신화의 그것에 대입해 보면 다음과 같은 도식이 성립한다.

사내아이	⇔ 오이디푸스
각시인형	⇔ 안티고네(혹은 폴리네이케스)
누이	⇔ 이오카스타
과수노파	⇔ 델피 신전의 무녀(여사제) 혹은, 오이디푸스가 이오카스타와 라이우스 사이의 소생임을 증거하는 노인
당나귀	⇔ 스펅크스
의붓어머니	⇔ 크레온

위의 도식에서 비교적 변화의 폭이 작은 것이 아이와 누이, 그리고 과수노파이고 나머지의 것들은 대개 역할이 도치되거나 약화된 것, 그리고 변형된 것에 해당된다. 각시인형은 소도구로 변형 되었고, 의붓어머니는 오이디푸스의 처남이자 외삼촌인 크레온이 약화, 도치된 것으로 보인다. 당나귀와 스펅크스의 관계는 좀 더 복잡한데, 변형, 도치, 대치, 약화 등의 요소가 골고루 배합된 것으로 파악된다. 오이디푸스의 스펅크스에 대한 승

21) 김치수 역, 『러시아 형식주의』, 이대출판부, 1981, pp.181-195.

리리는 측면에서는 약화현상이 확인되고 (14세의 소년은 이제 당나귀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아이 자신의 분신이 되는 측면에서는 도치와 변형이, 그리고 스팅크스와 대결하는 오이디푸스라는 측면에서 당나귀가 아이를 위해하는 ‘위험스러운 동물’일 경우에는 약화와 대치가 확인된다. 이 당나귀는 ‘양의성(兩意性)’이라는 측면에서 고찰되어야 할 중요한 신화적 상징이라는 것이 여기서도 확인된다.

그리고 인물 유형은 아니지만 행위의 패턴이라는 측면에서 누이의 ‘출가’가 이오카스타의 ‘자살’과 오이디푸스의 ‘방황’에 대응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다. ‘출가’가 곧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자살’이 다소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사내아이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방황’의 뒤편까지 겹치게 되는데 그럴 경우 도치현상의 하나로(아이의 뒤편이 누이의 그것으로) 파악된다. 의붓어머니는 아이와 누이에게 자상하다는 측면에서 오이디푸스에 대한 크레온의 역할에 대응하나 성별에 있어서 도치가 되어 있다. 의붓어머니는 누이의 연애사관과 관련된 태도에서 오이디푸스 신화에서의 크레온의 태도를 거의 훼손시키지 않고 그대로 답습하는 모양이다. 인간심리의 근원적인 영역이 동서고금의 시·공을 초월해 항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곳이다.

이상에서 밝힌 설화적 차원의 모티프와 함께 『별』에서는 신화적 모티프로서의 상징이 출현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당나귀’이다.

당나귀가 전처럼 제 꼬리를 물려는 듯이 돌다가 날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이는 당나귀에게 나처럼, 우리 널 왜 찍엔! 왜 찍엔! 하고 소리 질렀다. 당나귀가 더 날뛰었다.(238면)

‘당나귀’가 사내아이가 겪어야 할 통과제의의 한 보조적 수단으로만 해

석되는 것은 해석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별’이라는 소설은 표면적으로는 미와 추에 대한 변별적 인식,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성인적 차원의 각성 등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통과제의 소설’이라고 명명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으나, 그것이 이 소설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이것은 오히려 이 소설의 주변적인 미적 특징이 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당나귀’는 아이가 자신의 심리저층에서 ‘스스로의 악마적 표상’이라고 인식하는, 가학적 본능의 대상이며 그 자체가 되는 우회적 표상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어머니의 상징이다. 그래서 근원적인 근친혼의 금기와 관련될 수 있는, 상호 모순적인 관념의 화해와 공존이 가능한 마력적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경우이다.

## V. 마치는 글

황순원 소설은 그동안 무의식 속에 내포되어있는 욕망이 현실적 모습으로 표현되면서 이를 벗어나기 위해 서정적 세계라는 관념 속에서 통로를 찾는 해석이 많았다. 또 이 세계는 황순원 소설들이 보여주는 현실 인식과 인간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는 중심에 위치해있다는 점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세계이든 규격화된 입장에서 보면 현실은 하나의 보편적인 타락이면서도 비도덕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마음의 체험, 즉 표상(表象)은 사물과의 동화이다”라고 했다. 이 진술은 결코 진리의 명료한 본질정의로서 제출된 것은 아니지만 후세에 이르러 진리의 본질이 지성과 사물의 일치로서의 형식화를 완성하도



록 재촉하였다.<sup>22)</sup>

『별』은 일제 강점기에 발표된 것이지만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소설이다. 하지만 성장소설 혹은 통과제의적 측면에 그 초점을 맞추다보니 조금은 획일적이거나 단편적인 분석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인용문의 '표상'은 보통 감각적으로 외적 대상을 의식상에 나타내는 심상을 말한다. 이것은 소설의 등장인물이 겪는 갈등의 부산물과도 같다. 이 정의를 바탕으로 먼저 등장인물이 갖는 갈등의 양상을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연계시켜 보았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든 타인이든 서로 간의 화해가 어떻게 어우러지는 지를 살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현대 사회의 소외 문제를 바라보는 두 가지의 시각에서 조금은 벗어난 방법으로 살펴 본 결과 앞선 연구와는 조금은 다른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하나는 자아와 세계간의 시각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아와 자아간의 시각이었다. 그 차이는 결국 소외 현상을 객관적 상황으로 보느냐, 주관적 심리 상태로 보느냐에 따라 구별된다.

이 두 입장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면서는 동시에 상호소통의 측면도 있다. 다시 말하면 자아와 세계간의 경우는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소외 극복의 당위성을 강하게 제시한다. 반면 자아와 자아간의 경우는 주관적이 강하다는 측면으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소외 극복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누이가 주는 사랑의 힘을 누이의 육체적인 미의 부재로 인하여 파악하지 못하다가 그것을 조심스럽게 깨달아가는 것이 이 소설의 중심축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면서 하나의 성숙한 인

22) 전양범 옮김, 『존재와 시간』, 시간과공간사, 1989, p.288.

격체로 들어가는 과정이 또 다른 축을 형성한다.

사실 소외라는 말은 사회학적인 측면으로 볼 때 그 동안 여러 곳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고, 우리 또한 소외 현상을 하나의 병리 현상으로 간주한다.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소외를 극복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소외의 양상이나 소외의 원인만을 생각하면 오늘날의 사회는 비판 이론이 비판하는 산업사회나 경험적 사회 과학이 가정하는 대중 사회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현실과 문학의 세계는 객관적으로 인식되기 이전에 이미 주관적으로 판단되고 거부되는 것이다. 그리고 부정된 현실은 다시 서정적 세계가 작용을 가하여 이 세계의 실제적 기초를 박탈하면서 비현실적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별』에서 아이는 누이와 관련된 모든 것들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듯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항상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할 뿐이다. 자아와 세계가 서로 교체되면서 끝없이 고민하고 방황하는 모습은 어쩌면 현대를 사는 우리의 전형적인 모습일 수도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철학대사전』, 한국철학사상연구회, 동녘, 1997.

『한국삼대작가전집』6, 삼성출판사, 1970.

### 2. 논문 및 단행본

권영민, 『말과 삶과 自由』, 문학과지성사, 1985, p.148.

김용희, 『현대소설에 나타난 ‘길’의 상징성』, 정음사, 1986, p.33.

김치수 역, 『러시아 형식주의』, 이대출판부, 1981, pp.181-195.

김형자, 『소외의 서사학』, 태학사, 1998, p.80.

- 박은태, 『황순원 소설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13권, 2003, p.119.
- 박창희, 『갈등과 소외』, 단대출판부, 1989, p.35.
- 신영미, 『희생제의를 통한 심미적 가치의 획득』, 『한국문예비평연구』 31집, 한국현대 문예비평학회, 2010, p.228.
- 신오현, 『소외 이론의 구조와 유형』, 문학과지성사, 1984, p.47.
- 안진태, 『신화학강의』, 열린책들, 2001, p.38.
- 양선규, 『황순원 소설의 분석심리학적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 이규호 역, 『건전한 사회』, 삼성출판사, 1981, p.303.
- 이극찬, 『프롬의 자유 사상』, 연세대출판부, 1985, p.27.
- 이영호, 『소외된 삶과 표상의 세계』, 한길사, 1991, p.87.
- 이익성, 『일제 암흑기 황순원의 창작 단편소설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61권, 2015, p.121.
- \_\_\_\_\_, 『해방공간 황순원 단편소설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66권, 2016.
- 이태동, 『황순원 연구』, 문학과지성사, 2000, p.70.
- 장병호, 『소외의 문학 갈등의 문학』, 시와사람, 2008, p.221.
- 장현숙, 『황순원소설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 \_\_\_\_\_, 『황순원문학연구』, 푸른사상, 2005.
- 전양범 옮김, 『존재와 시간』, 시간과공간사, 1989, p.288.
-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p.66.
- 황순원, 『말과 삶과 自由』, 『말과 삶과 自由』, 문학과 지성사, 1985, p.23.

**Abstract**

‘Alienation’ Aspects in Hwang Sun-won's Novels 『Stars』

Shim, Young-deuk

『Stars』 was released on the Japanese occupation of Hwang Sun-won. But the various possible interpretations even from the modern novel perspective. In the meantime, adjust the focus on the growth side of the novel ritual or pass looked a bit is the fact that the monolithic or fragmentary analysis were many.

This article focuses on the ‘alienation’ consciousness beyond the novel appeared in this discussion. It is the hope of the novel in terms of alienation and equals and access to psychoanalytic or psychological aspects of the novel. This is an opportunity to broaden your understanding of the spiritual world of the novel.

Boy 『stars』 is a person with a view hard to properly factor in the personality aspects. Yu weird obsession with his mother. But he has strict standards towards the beauty. When the utmost care by a sister relationship with the world feel that they belong to own happiness it is to find the natural beauty of the place.

Way of looking at the novel is alienated from both. One was the time between the self and the world, the other one was the time between ego and self. End Seest a phenomenon objectively disadvantaged situation, as the difference between the results of Seest to the subjective state of mind has changed. Two positions are detected at the same time is a side view of the mutual communication while having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n other words, if between the self and the world, albeit somewhat abstract suggests strongly the necessity of overcoming alienation.

The center of the novel is not identified because of the power of love to give the silkworm physical beauty of the absence of his sister will go carefully

and understand it. And in the process, even while accepting mother's death can be seen as the will to overcome the reality in the process of entering into a mature person to appear.

Key Word : conflict, self, alienation, self-alienation, Oedipus complex, reconciliation

심영덕

소속 : 경북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사

전자우편 : cdIm0808@naver.com

<p>이 논문은 2016년 10월 30일 투고되어 2016년 12월 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6년 12월 9일 게재 확정됨.</p>
---